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이 40년을 맞았다. 4일에는 고객들이 직접 기획한 기념음악회도 열린다.

시민과 함께 40년... 오늘도 클래식은 흐른다

“잠 좋다.” 창밖으로 보이는 무등산,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생상스의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따스한 햇빛이 쏟아지는 창가, 그리고 커피 한잔. 지난 31일 취재를 위해 오랜만에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에 들렀다 새삼스레 든 생각이다. 베토벤은 흰 눈이 쏟아지는 날, 비가 오는 날 어느 때 찾아가도 좋고, 6층에서 내려다보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야경과 5·18 민주광장의 활기찬 모습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광주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이 올해로 마흔살이 됐다. 1970~80년대만 해도 충장로에는 클래식 음악감상실이 많았다. ‘비엔나 음악감상실’, ‘필하모니’, ‘고전’ 등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감상실은 모두 오래 전에 자취를 감췄고, 그래서 ‘베토벤’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베토벤은 이곳에서 추억을 쌓았던 모두가 함께 지켜온 공간이다.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던 2007년 ‘음악감상실 베토벤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져 위기를 면했다. 30주년이었던 지난 2012년에는 고객들이 힘을 모아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올해도 베토벤을 아끼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40주년 기념음악회-Andante로 세상을 살다, 언어 이전의 떨림’이 오는 4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소중한 공간”은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다. 베토벤에서 추억을 쌓았던 이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시대의 어른이었던 법정스님의 흔적이 이어졌던 감상실은 모두 오래 전에 자취를 감췄고, 그래서 ‘베토벤’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베토벤은 이곳에서 추억을 쌓았던 모두가 함께 지켜온 공간이다.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던 2007년 ‘음악감상실 베토벤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져 위기를 면했다. 30주년이었던 지난 2012년에는 고객들이 힘을 모아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올해도 베토벤을 아끼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40주년 기념음악회-Andante로 세상을 살다, 언어 이전의 떨림’이 오는 4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소중한 공간”은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다. 베토벤에서 추억을 쌓았던 이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시대의 어른이었던 법정스님의 흔적이 이어졌던 감상실은 모두 오래 전에 자취를 감췄고, 그래서 ‘베토벤’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광주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 법정 흔적 찾기·레트로 여행자 발길 4일, 고객 기획·참여 ‘기념음악회’

신선도 될 수 있다. 법정 스님이 직접 써 준 글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조용히 음악을 듣는다. 베토벤은 다큐멘터리 ‘법정 스님의 의지’에 등장한 덕에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낯선 사람까지도 금방 벗이 되는... 음악으로 가득한 집’이라는 글귀를 남겨준 이해인 수녀는 언젠가 베토벤에서 전교생이 30명 뿐인 강진 성전중학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소설가 윤대녕의 산문집 ‘그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문학동네)에도 베토벤은 등장하고, 시인 류시화는 르플레지오의 글귀를 적은 엽서를 ‘정옥 누님’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베토벤의 소반’과 적힌 검은색 파일 속에 담긴 건이 씨가 ‘아주 많이 나이가 들면 혼자 두고두고 읽고 싶어’ 모아둔 편지와 엽서, 기사들이다. 1995년 베토벤을 찾았던 대성여고 3학년 헤미와 미성이. 두 소녀는 ‘베토벤을 만난 걸 길지 않은 제 생애에 있어 손꼽을 만한 행운’이라 믿었고 ‘나이가 들면 돌아서 베토벤같은 멋진 음악감상실을 하고싶다’고 적었다.

‘비창’과 ‘열정’을 들으며 밖을 한참 내다본 일본 시인 나스 마사노부씨는 ‘소나타가 흐르는 베토벤’이라

는 시구가 등장하는 시 ‘여기가 진혼의 증거다’를 향공우편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베토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는 수십년간 음악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안철씨다. 현재는 ‘오페라 감상’(수·오전 10시 15분), ‘고전음악감상’(토·오 후 2시30분)을 운영중이다. 이 씨는 “언제나 한결같은 신 선생님이야말로 베토벤의 구심점이자 멘토”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4일 열리는 음악회는 고객들이 기획하고 참여했다. 이상열씨는 첼로와 플루트로 ‘자클린의 눈물’과 ‘베니스의 축제 변주곡’을 연주하고 서만준 기타리스트는 ‘아랑훼즈협주곡’과 ‘토카타’를 들려준다. 또 손은찬(살레시오초 5년)군은 바이올린 연주 ‘Memory’ ‘Way Back Home’를 선사하며 30주년 때도 참여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양세미씨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등을 들려준다. 이어 안철씨가 음악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베토벤을 오래 알고 계신 분이나, 처음 오시는 분이나 절대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루 바닥과 붉은 벽돌 등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꼭 좋아하시죠. 제 자신부터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음악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문을 열고 싶습니다.”

이 씨는 “영혼이 순수하고 맑으신 분들이 감상실을 찾아주시기에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다”며 “갑작스레 고객들이 준비해준 이번 기념 음악회도 그렇고, 정말 복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문의 062-222-8410.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 음악을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베토벤'.



‘그날 까지도’

서양화가 김병모 회고전 ‘그날 까지도’

아들 김정훈 씨 기획, 12일까지 화순군립 석봉미술관

아들은 50년 동안 묵묵히 화업을 이어간 아버지를 기리고 싶었다. 대학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미술 관련 일로 밥을 먹고 있으니,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셈이기도 하다. 세상을 떠나기 1주일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다. 작업실에 쌓여 있는 아버지의 작품을 살피며 추억에도 젖고 울컥하기도 했다. 타계 5주기를 맞아 아버지의 작품 세계를 갈무리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그날 까지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들 김정훈씨가 기획했다. 부모님이 모두 조선대 미술대학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화가를 꿈꾸던 그는 현재 동국미술관·박물관에 근무중이다.

김병모(1949~2019) 작가는 남원 출신으로 조대부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미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30년간 조대부고 미술교사로 근무했던 그는 언제나 그림과 함께였다.

정훈 씨는 아버지 작품을 정리하며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전시에서는 김작가가 스물 두 살 학창시절에 그린 풍경화부터 국전에 출품했던 30대 시기의 인물화, 야외 스케치를 다니며 마주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40~50대 시기의 작품들, 작

업실에 머물며 구성적 실험과 간결하게 응축된 선의 움직임을 표현했던 60대 시기의 작품 등 총 94점의 작품을 만난다.

전시는 1층과 2층 전관에서 진행된다. 회화 작품을 비롯해 드로잉과 수채화, 조각 작업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손 때 문은 이젤과 팔레트, 물감과 붓 등 작업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유품도 함께 전시한다.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그날 까지도(162×360cm)’다. 암 판정을 받았던 그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감했다는 듯, 작품에 몰입했다. 평소 즐겨 그렸던 구름은 하늘 끝에서부터 폭포가 돼 바닷까지 흘러넘치고 작가의 모습인듯한 황새가 어디론가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처음 작업실을 정리하려 갔을 때 ‘그날 까지도’를 본 정훈 씨는 화사하고 밝은 작업을 주로 하시던 아버지의 작품이 확 변한 느낌을 받았다. 또 병원에 마지막으로 들고 갔던 드로잉북에 가족들 이름을 모티브로 문자 추상 작품을 그려놓은 걸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훈 씨는 “자기만의 표현과 작품 세계를 찾아가려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던 아버지의 작업을 늘 지켜봐왔던 터라, 아버지의 그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장에서 만나는 김병모 작가의 유품.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상징물 아이디어 시민 공모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기지재단과 함께 제정·운영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상징물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예술 도시인 광주의 역사나 문화, 예술적 요소가 깃든 상징물 아이디어를 이유와 함께 보내주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2인에게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5매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상징물 아이디어와 그 의미를 200자 내로 작성해 제출(https://forms.gle/sE9PzGzUYtUSqXG79)하면 된다.

한편 오는 4월 7일 개최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2042년까지 매 대회마다 운영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가 1인(팀)에게 상금 10만 달러가 수여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BTS 제이홉 생일 ‘광주 홉데이’ 투어

광주관광재단, ‘홉 월드 스노우 볼’...내일부터 선착순 218명

광주관광재단이 광주 출신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사진)의 생일(2월 18일)을 기념해 ‘광주 홉데이’ 투어 이벤트를 연다.

‘광주 홉데이’ 투어는 218명에게 ‘홉 월드 스노우 볼’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3일을 시작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스노우볼을 받기 위해선 먼저 광주 K-POP 관광지로 추천된 장소 2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야 한다.

광주 K-POP 관광지로는 청춘발산마을(서구 천변로 12-16), 양림동 펭귄마을, K-POP 팬 존(금남로 4가 역사 내), K-POP 스타의 거리(동구 충장로 안길36) 등이 있다.

이때 게시글에는 #광주홉데이, #광주관광재단 해시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비공개 계정은 참여할 수 없다. 또 부정 방지 참여를 위해 사진에는 굿즈가 나오게 촬영해야 한다. 인증샷 촬영 후에는 남도관광센터(전일빌딩 2층)를 찾아 QR코드로 메타버스 웹에 접속해 K-POP 스타의 거리 메타버스 체험을 진행하면 된다.

또 ‘광주 홉데이’ 투어 이벤트 후기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인스타그램 혹은 네이버 블로그 등에 후기를



작성한 뒤 재단 인스타그램(@ingjito) 프로필 내 구글폼에 접속해 작성한 글의 링크를 첨부하면 된다. 재단은 후기를 남긴 참가자 중 5명을 선정해 광주비엔날레(4월 7일~7월 9일)입장 교환권을 각 2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영화광 기원’ 집담회...3일 광주독립영화관

1990년대 한국에 영화 문화를 전파했던 ‘시네마테크’를 주제로 한 집담회가 열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3일 오후 3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영화광의 기원:90년대 시네마테크와 우리의 극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집담회는 한국에 수입되지 않았던 세계 예술영화와 정치적 영화를 비합법 비디오로 소개했던 시네마테크를 조명한다. 특히 현재 ACC에서 19일까지 전시 중인 ‘원초적 비디오 본색’의 색션 ‘꼬뽀들의 연

대기’ 확장판으로 진행된다. 이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영화사에 끼친 영향력을 90년대 시네마테크 활동과 연결 지은 것이다.

집담회 패널로는 영화 ‘돼지의 왕’을 제작한 조영각 프로듀서, 광운대 인디스토리 대표, 조대영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 김희진 부산 토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강민구 대전 아트시네마 대표, 이진숙 영화 ‘밀정’ 프로듀서가 함께한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ACC 지역작가 공모, ‘틈’ 주제 20일~3월 6일

‘틈’을 주제로 한 지역작가 공모전시에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ACC 지역작가 공모’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회화를 비롯해 조각, 설치 등 시각예술 전 분야.

이번 주제 ‘틈’은 사전적 의미의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를 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

하다. 즉 시간적 여유나 기회, 겨울 등으로 볼 수 있다.

공모 자격은 광주를 비롯해 전남도·북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응모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대 3인(팀)의 참여작가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